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몸 되신 교회 (에베소서 4:4-16)

이 땅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주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1.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 하므로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오시므로 오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표성입니다.

머리는 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떠나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성도가 살 수 없습니다.

2.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몸 안에 있는 지체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돕는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한다”(4:16)의 말씀같이 서로 돕고, 서로 연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를 가리켜 ‘저들이 다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면 그 곳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2) 섬김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뿐 아니라 피차에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갈 5:13).

(3) 진리의 공동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섬겨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섬김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의 은사를 따라 피차에 돕고, 사랑하고, 섬기므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Church as His body (Ephesians 4:4-16)

One of the reasons why God gave us the Church to worship was to provide Jesus with a particular title to thank Him for.

1. Jesus Christ who is our Head

Jesus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The fact that Jesus is the Head of Church means representation. Ever since the ancestor of mankind, Adam, committed his crime against God, sin and death have been brought to bear upon all human beings. However, after the second Adam, Jesus Christ, came to us, all who are in Him are able to escape death. And all in Christ have won the victory and have become God's children regardless of sin. This is what the representation of Jesus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Christ has accomplished.

Jesus Christ as Head also means life. Just as the body cannot live without the head, the saints cannot live without being united with Christ.

2. The Church as His body

The concept that Christians are the body of Christ requires that they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s. In other words, just as we observe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rts of our own bodies, Christians must help each other through close relationships. 4:16 says, "From him, the whole body is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ach supporting ligament." the body must continue to grow and build itself up, as each part does its work.

Acts 2 describes the Church as "They were all together." This is the meaning of 'community.'

(1) A community in love

Even if a church is set up in the direction of a certain goal, it cannot become a community. No matter how many people are joined together, if God's love does not manifest itself, there cannot be true community.

(2) A community in service

The Church must be a community that loves and serves one another. The Apostle Paul said, "Serve one another in love" (Galatians 5:13).

(3) A community in truth

No matter how much we love or how well we serve, if there is no truth, that community will only be an object of wrath. Only as we are in the midst of truth can we make the object of our love clear and thus be moved to our responsibility to serve.

My beloved Christians!

In accordance with each grace, we can help, love, and serve each other.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to build a Church of His bod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U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 사명자 대회

- 발대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 전도의 대장정인 「2010년 사명자대회」가 오늘 자정을 기해 50일간 진행된다. 이번 사명자 대회는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를 주제로 대회 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씩 전도하는 태신자 작성, 주일을 제외한 11월1일(월)부터 27일(토)까지 24일간 이종윤 목사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하는 특별새벽기도회, 50일동

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10시에 열렬히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성경 암송대회등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행사가 진행된다.

오늘 후보 삼지로 함께 배포된 50일 연속기도회에 본인의 명단을 확인하고 맡은 시간을 책임 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2010 성경암송대회

예선 - 17일(주) 각부서별로 / 본선 - 22일(금) 오후7시 602, 603, 609호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인 성경암

송대회가 '로마서6-10장'(개역개정판, NIV)을 본문으로 17일(주) 부서별 예선을 거쳐 22일(금) 본선을 진행한다.

사명자 대회 특별기고

왜 사명자대회인가?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출발을 했다. 그때 받은 사명(비전)을 확인하고 바르게 후대에 전수시키려고 해마다 교회설립 50일전부터 사명자대회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확인하고 있다.

I.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려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이를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32:7)

역사는 본래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장소다. 19년 전 과거사를 미화시켜 인간 예찬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자는 것이다.

부자와 저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한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권함을 받지 아니 하리라(눅16:31)하셨다. 이것은 역사의 실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지난날의 문헌진 형해(形骸)가 아니다.

II.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키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신8:2)

우리는 그때에 목자 잃은 양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슬픔을 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렸다. 인간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섭리의 실현과정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

다. 그것은 결코 인간 행적을 드러내어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약함과 불순종과 불충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III. 겸허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언약의 연속성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롬15:4)

세상의 일들은 그것이 먼 곳에 있던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다 나와는 꿈을 래야 꿈을 수 없는 인연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부정하라. 우리는 역사에서 그 멀고 또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겪어온 일들 즉 가슴벅찬 일, 가슴 메어지도록 아팠던 일, 감격에 소리치고 비애에 땅을 치던 일들, 축복에 찬송하고 환난에 도움 찾아 손 뻗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 모습이 거기에 있고 내 자신이 역력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여 우리의 빛은 모습과 천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지난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회개를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행적을 찬양하고 자랑하면 거기엔 감동이 없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통해 세워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불변성, 연속성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비전(사명)을 오늘도 계속 감당하고 내일도 잊지 않고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더 크신 복이 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Soli Deo Gloria!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8:7)

2011년 교회봉사지원서 제출

10월 24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봉사지원서를 바탕으로 2011년도의 부서별 운영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교회봉사지원서 제출은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신규봉사자 또는 부서이동 봉사자 위주로만 제출을 받는다.

금일 후보 삼지로 배포된 2011년 교회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24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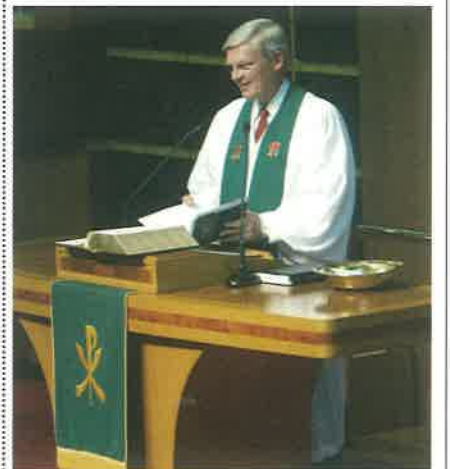
군선교사 파송

우리교회는 김명일 목사(60.4.10)를 군선교사로 파송한다. 김명일牧사는 총신대학교(B.A),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총신대 대학원(M.A), 미국 Multnomah Biblical Seminary 가정사역 석사과정 1년수학, Western Seminary 선교학박사과정 D.Miss과정을 수학하였다.

제2권사회 주관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

10월11일(월) - 14일(목)

제2권사회(회장 윤숙희 권사)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4일간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 여성정장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를 갖는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웨스트민스터 빌백총장이 본 서울교회를 방문하여 지난 주일 1, 2부 예배설교를 하였다.



10월 8일(금) - 웨스트민스터 한국동문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빌백총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다

학교, 병원, 교회 등지에서 청소하고 공장에서 조립하는 노동, 결혼식같은 파티에 웨이터로, 순찰자, 순찰병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만큼 갖은 일을 다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영적 사역자를 만드시려고 보이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일을 하니 어려움 없이 해냈다. 성격도 낙제과목은 없었으니 감지덕지다.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예일대학 신학부 신학석사(S.T.M)과정에 입학지원을 하여 인터뷰를 하기 위해 콘넥트 커트 주를 갔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WCC장학금 신청을 해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외엔 다른 질문이 없었다. WCC장학생이 되려면 한국에서 NCC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종윤이 섬기던 천현교회는 NCC회원교회 가 아니다. NCC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올해 학교 장학금은 이미 다 확정되었다고 내년이면 고려하겠다고 한다.

이종윤은 웨스트민스터에서 Th.M(신학석사)과정을 하기로 하고 공부를 계속했다. 대학원을 거의 마칠 무렵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교 종교학과 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하고 한 학기 이수 하였으나 신약교수는 카톨릭 신



St. Mary's College(1411년) 교정에서

자 한 분뿐인데 박사 입학생은 전체 50명정도였다. 이종윤은 이를 포기했다. 그해 성탄절에 이종윤이 Youth Minister로 섬기는 Holy Trinity Bethlehem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인 Edward Jones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식사초대에 응한 Jones목사는 50세쯤 되신 총각목사였다. 그가 이종윤의 집에 들어오자 깜짝 놀랄 만큼 "아, 세인트 앤드류스!" 창가에 꽃힌 크리스마스 카드를 집어 들며 어떻게 이 카드를 갖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연세대 김찬국교수가 St. Andrews대학에 연구차 가셔서 보내준 카드였다. 존스목사님은 그 대학이 자기 모교이며 그 학교 신약학부에 Matthew Black, Mc Wilson, Earnest Best박사같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교수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존스목사님은 자기집으로 곧 가서 카탈로 그를 가져다 보여 주면서 스코틀랜드 Oldest University며 종교개혁의 발상지로 존 나스의 모교이기도 한 St. Andrews를 한껏 자랑한다. 이종윤이 이미 읽은 바 있는 저명한 교수들이 있는 그 대학에서 학위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세인트 앤드류스의 역사와 거기서 자기가 학위공부 했을 때 얘기로 시간을 보내고 네가 원하면 자기가 동문으로서 추천을 하겠다고 한다.

이종윤은 다음날 즉시 웨스트민스터 지도교수인 스킨톤박사를 찾아가 의논을 드리고 Hughs박사와도 의논했다. 그들 모두는 St. Andrews를 적극 추천한다. 다만 예수의 모어(母語)가 아랍어라는 주장을 하는 Matthew Black 교수에게 가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Skilton박사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 부분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니 추천을 해 달라고 했다. 세인트 앤드류스에 편지를 보냈더니 이미 입학원서 마감은 12월로 했으나 지금이라도 연구할 제목과 50페이지 이상의 개요를 보내주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답장이 왔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다른 요구조건

은 다 준비되었지만 논문 개요를 만들기에 역부족이었다. 하는 수없이 웨스트민스터 석사 논문 준비하던 것을 만들어 보냈다. 세인트 앤드류스대학에서는 교수 한 분이 박사 후보생 5명이상 받지 않는 전통이 있다. 그해 마침 한 학생이 학위를 받게 되어 이종윤은 St. Andrews대학교 St. mary's College 늦둥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종윤의 아내 홍순복은 2년반만에U.Penn의 Medical Technologist과정을 마치고 ASCP(America Society of Clinical Pathology: 임상병리학 기사)자격증을 획득했다. 대형병원마다 그를 필요로 하여 주일성수 할 수 있고 박사공부까지 장학금도 주고 일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위치한 Hahnemann Medical Hospital(대학병원)을 선택하여 취직을 한다. 당시 몇 명 안되는 한국인 의사들이 8,000\$에서 10,000\$을 받는데 홍순복은 15,000\$의 수입을 얻게 되니 이종윤은 그때부터 경제문제에선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다. 웨스트민스터 졸업식에 참석하러 오신 이종윤의 모친이 미국서 출산한 두 딸(미영, 미경)과 한국서 낳은 딸(미리)을 돌보시고 홍순복은 이종윤의 후원자가 된다. 이종윤은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다시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난다.

입학지원이 늦었고 기숙사도 배정이 끝난지라 이종윤은 대학에서 소개해 준 GreyHouse 개인집 이층에서 인도에서 온 Aftaraj와 함께 자취를 하게 된다.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 한쪽으로 때우고 점심은 19페니짜리 fish & chips를 의자도 없는 간이식당에서 서서 한 조각 먹고 저녁은 아프다라츠와 교대로 준비기로 했다. 이종윤(?) 스키야끼를 만들어 인도친구에게 대접하면 평생 처음 먹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지금도 편지를 하면 그 얘기부터 회상한다.

세인트 앤드류스는 골프를 치는 이들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골프의 성지로 지금도 British Open과 같은 큰 경기가 계속되고 거기서 골프를 친 것을 영광으로 안다. 그 대학은 전통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다. 강의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하지 않고 교수 연구실 앞에 붙어 있는 예약서에 수요일 시간에 맞는 질문 예약을 한다. 대개 오후엔 교수도 학생도 골프장에 간다.

그러나 이종윤은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한번도 잡아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을 떼어 놓고 온 목적이 골프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책상 앞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눅9:62)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써 붙여놓고 조찬을 7시에 먹고는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지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2년차부터는 대학원 기숙사인 Deans court에 입사했으나 점심과 저녁먹는 대부분의 시간을 놓쳐 Deans court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fish & chips먹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다음호 계속)



주여 도우소서 이 사망 다하기까지...

주님
사망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내게 주신 사망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사망을 깨닫게 하셨으니 끝까지 감당할 능력과 열망을 주옵소서.

주님
사망을 안고 태어난 서울교회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망을 알고도 행치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망은 힘들고 괴롭다고 물러설 수 없사오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주님 명령으로 받았으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외엔 다른 류가 없다 하셨으니 주신 말씀 따라 기도로 구하면서 감당하리이다.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라 하셨으니
햇불을 올리리다.
나팔 불고 밧줄을 던지리이다.
주여 도우소서. 이 사망 다하기까지...
... 아멘.

목사 이종윤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며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



신용식 장로 (사명자대회 본부장)

우리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50일 전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지향하고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받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달려 왔습니다.

사명자대회 2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10월 10일(주일)부터 2010년 11월 28일(주일)까지 50일간, 특별새벽기도시간을 2010년 11월 1일(월)부터 11월 27일(토) 새벽 05:00-06:00까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하에 요한 칼빈의 "기독교강요" 전 4권 80장을 이종윤 목사님의 강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명자대회 20주년을 맞이하여 4주간을 특별새벽기도시간으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개혁교회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는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책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선행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기념비적인 소중한 사명자대회에 꼭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슬픈 자가 위로 받고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새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며, 잃은양 찾기, 이웃과 일가친척, 직장동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명자대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벽기도 끝난 후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 8층식당에서 아침간식을 권사님들과 사명자대회 분과위원들의 봉사로 정성껏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목사님과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박연준 (초등부 6학년)

저는 어릴 때 성경암송대회에서 상을 받는 누나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크면 성경암송을 꼭 해야지 생각하며 유치부 때부터 성경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재미도 있고 누나처럼 상을 받고 싶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성경암송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후 나는 내년에는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암송준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1월 말쯤 나는 울 연말 이종윤 목사님이 퇴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권사님이신 나의 할머니님도 퇴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이사하신 이종윤 목사님은 우리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셨고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늘 사랑해주시고 따뜻이 맞아주시며 항상 기도해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나는 이 두분의 퇴임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좋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금통을 보니 돈도 많지 않았습니

다. 그때 갑자기 성경암송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지만 하기 싫었지만 다시 시작하자!'

퇴임하시는 이종윤 목사님과 나의 할머니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경암송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올해도 큰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음으로 목사님과 할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부장-하인선장로)의 찬양으로 드린다. "나의 주님", "찬양의 삶 (Pepper Choplin) 등 세곡을 유태왕집사(이태리 로마 C.S.M 아카데미 졸업/도봉구립합창단지휘)의 지휘와 오자경집사(미시건대 대학원졸업-박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교수)의 오르간 반주, 조현정성도(국민대 대학원졸)의 피아노 반주, 윤주일성도(코리안 심포니 팀파니스트)의 팀파니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2010 가을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화요정오음악회는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시작한다. 강민정 선생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석사),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최고연주자과정), 현 서울신대, 성공회대, 포항예고 출강 중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제3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 참석차 이영기 장로(선교위원장)와 이갑진 장로(AMCF 동아시아 지역대표)와 함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88명의 한국대표단을 인솔하고 14일(목) 출국하여 28일(목) 귀국한다.

- 이사 :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이민화 권사(모친) 가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9-8 T. 031)704-5276
- 득남 : 배효복 집사 김경숙 집사(9교구)
- 개업 : 예완식 집사(10교구) 블루오션월드(정수사워기) 성내동 197-3
- 주간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10.10) 바울전도회(10.17)
- 금주의 식사 : 이광엽 집사 엄금순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4. 피택자들의 준비 과정 순조롭게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